

백과사전의 뽀뽀한 종이에 베이다

냄새와 촉각으로 남은 책의 추억

성기완 | 시인 · 대중음악평론가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새책에는 특유의 냄새가 있다. 그것은 접혀진 상태에서 한번도 펼쳐지지 않은 냄새다. 햇빛을 본 적이 없는 새 종이를 위에, 휘발되지 않은 휘발성의 어떤 성분이 숨어 잠자다가 책을 펼치는 순간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바깥 공간으로 흩날릴 때의 그 냄새 말이다. 그 특유의 냄새에 관한 기억을 쫓다보면 어렸을 때 집에서 (지금 생각하면 큰맘 먹고) 장만해 보게 됐던 계몽서관 《컬러 학습 대백과 사전》에 다르게 된다. 아마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일이 아닐까 싶다.

총 몇권으로 이뤄진 백과사전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1권의 항목이 '가계'에서 시작해 '그리마'로 끝나는 것만은 아직도 명확하게 기억한다. 특히 당시에 느꼈던 '그리마'라는 낱말의 생경함은 지금도 생생하게 스멀거린다. 무슨 뜻인지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낱말은 지금껏 그렇게 물질감 있게 내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 같다. 사전을 펼쳐보니 그 말은 다리가 수없이 많은 징그러운 벌레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 벌레는 뽀뽀레인가? 아마 그럴 것 같다.

때는 초여름, 날로 푸른빛을 더해가는 나뭇잎들이 하늘을 어른어른 가리기 시작하던 때였다. 그 푸른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눈부시게 반짝이던 날의 오후에 백과사전이 도착했다. 나는 학교를 파하고 집에 돌아와 언뜻언뜻 나의 시선을 어지럽히는 그 햇살 속에서 놀다가 책이 도착하자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초여름의 구들장에서 피어오르는 특유의 시원함을 느끼며 배를 깔고 엎드려 '가계~그리마' 항목들이 들어 있는 그 백과사전을 펼친 것이다. 아직 불을 켜지 않아 약간은 어두컴컴한 방안의 분위기 속에서 신비스러운 느낌과 함께 피어오르던 것이 바로 그 '새책 냄새'다.

휘발하면서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 스며드는 그 냄새. 가나다 순으로 사진들과 함께 정돈돼 있는 예쁜, '사실들'과 '사건들'과 '사람들'. 항목들 하나 하나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사건과 사람이라기보다는 아직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 뽀안 몸들처럼 나에게 다가왔다. 그 항목 하나 하나를 읽는 어린 나는 그것을 통해 상식적인 정보를 얻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때의 나는, 뭐랄까, 항목 하나 하나가 갖고 있는 드라이한 문법적인 아름다움이랄까, 무의식중에 그런 걸 느끼며 뭔가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정돈돼 있구나, 그리고 이런 걸 어찌면 지식이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처음 깨달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마치 하나 하나의 항목을 지나치는 것이 박물관에서 전시품들을 관람하기 위해 소요하는 일과 비슷했다. 그날 오후 나는 지식의 박물관에 전시된 사실들을 생애 처음, 알 수 없는 묘한 향내와 함께 감상한 것이다.

그런데 그날에 관한 기억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다. 그런 식으로 그 냄새와 항목들에 빠져들면서 초반의 어느 한 페이지를 넘기다가 나는 약간은 두꺼운 도화지 같은 지질로 된 그 책에 그만 손가락을 베고 만 것이다. 아마도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 속도가 점차 빨라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아이들의 호기심이라는 건 그리 오래 가지 않는 법이다. 그 호기심의 속도는 너무도 빨라 이것에서 저것으로 무서운 속도로 옮겨다닌다.

어쨌든 무심히 획, 하고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아찔한 감각이 손가락 끝에 전해져왔다. 처음에는 책에 손가락을 베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다. 그것은 아찔한 감각 직후에 들릴 듯 들 듯 비명 소리를 내며 무의식중에 쳐다본 손가락에 아직 피가 맺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새 책의 페이지들이 그렇게 날카로울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간의 진공상태 비슷한 시간이 흐른 후, 나의 검지손가락 끝에 천천히 피가 맺히기 시작했다. 피가 맺히는 곳 바로 밑을 조금 누르자 그 피는 덩어리가 커져 그만 또르르 흘러내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나는 그 피가 새책에 묻으면 안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얼른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갔다. 시큼하고 짝짝한 피맛. 책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는 다시 찾아들었다. 나는 조심조심, 천천히, 오른손 검지손가락에 우선 휴지를 감싼 채 소요를 재개했다. 소요를 재개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항목들이 계속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으므로. 그 이후의 소요는 조금 주눅이 든, 약간은 착잡한 기분의 그것이었다. 지금 기분인지도 모르지만 새 백과사전은 어린 나에게 이상한 방식으로 한수 톡톡히 가르쳤던 것 같다. '나는 네가 쉽게 안길 수 있는 다정한 존재가 아니야. 지식의 세계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도 아니고 심심풀이 땅콩도 아니야. 나는 엄정하고 정확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 온 인류의 역사가 필요했어' 라고 말했던 것일까.

종이에 베인 그 상처는 생각보다 아팠고 그 얼얼함은 꽤 오래 갔다. 입안에서 맴도는 그 피맛과 함께, 새책에서 피어오르던 신비로운 냄새는 안개처럼 걷히고 말았다. 나는 한번 혼난 아이처럼 고분고분해졌다. 이제부터 그 항목들은 박물관에 전시된 매혹적인 사실들이 아니라 무서운 눈매로 나를 쳐다보며 끝도 없이 줄을 맞춰 서 있는 군인들이었다. 어쩌면 나는 제대로 길든 것인지도 모른다. 백과사전은 지식의 박물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각각의 항목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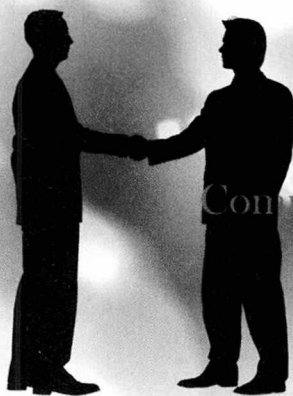
이 칼같이 줄을 맞춘 채 조각상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서 있는 지식의 사열장이기도 한 것이다. 나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새 책을 대할 때면, 특히 지질이 좋은 새책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경계한다. 새 책은 신비로운 향기를 내뿜는 매혹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날카로운 날을 가진 칼이기도 한 것이다.

3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책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다. 몇 년 전, 집안 물건 정리하다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어린 시절의 그 백과사전을 감회 어린 마음으로 펼쳐봤지만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사진의 인쇄상태는 조잡했고 항목을 묘사하는 글귀들도 그렇게 세련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다. 예전에 나의 손가락을 베게 만들었던, 끌어들이는 듯한 냄새가 나던 백과사전이 이렇게 볼품없이!

그 얼마 후, 나는 세장짜리 CD로 구성된 백과사전 하나를 선물 받았다. 이 CD의 포장을 뜯는 것은 당신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쩌구 하는 매정한 글귀가 스티커에 써어 있었다. 정품 CD-ROM에 일반적으로 적혀 있는 그 말의 어투는 참 정떨어지게 만드는 면이 있다. 그 말은 그 물건과 나의 관계를 상품과 소비자와의 어떤 법적인 관계로 환원, 축약시켜버린다. 그 말귀를 거의 무시하듯 스티커를 뜯어 CD 케이스를 열었다(어처구니없게도 나는 그 말에 동의한 것이다). 도넛보다 큰, 플라스틱 재질 안에 금속성의 박막이 들어 있는 것 같은 이 디스크.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었다. 나는 그걸 CD-ROM 드라이브에 넣는다. 그러면 편집자들이 설정한 미로가 나타난다. 그 미로를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방사상으로 링크된 멀티미디어 백과사전의 항목들을 약간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헤집고 다닌다. 그래, 이젠 이 작은 공간 안에 무시무시한 고밀도로 농축된 지식의 울가미 속을 그렇게 헤집고 다니는 것이다. ■

다름에서 디자인은 행복을 느낀다

사람을 이해하는 디자인, 다름의 경쟁력입니다



Communication
Design Partner Darum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쟁력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디자인,
바로 다름의 경쟁력입니다.

시각커뮤니케이션 : 브로슈어 / 카탈로그 / 홍보물/패키지 / CI, BI
출판커뮤니케이션 : 잡지 / 사사 / 사내외보 / 표지 : 본문디자인(단행본, 아동, 학습서)
광고커뮤니케이션 : 신문광고 / 잡지광고 / 포스터 / POP / 캘린더

dp design partner darum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95-1(5F) TEL 02_325_6260_1 FAX 02_325_0944
E-mail_darumman@korea.com